

# 광주·전남 오미크론 비상 “설 고향 방문 자제해달라”

‘일상 잠시멈춤’ 호소...광주 고위험시설 진단검사 확대기간 연장  
전남, 일일 확진자 첫 200명 돌파...목포·여수·순천·나주 확산세

광주시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고위험 시설의 진단검사 확대 기간을 2주 연장하는 등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일일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선 전남지역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안전을 쓰고 있다. 시·도는 특히 인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기점으로 대규모의 오미크론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고향방문·여행 자제 등 ‘일상 잠시멈춤’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4일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방역 당국은 물론 시민 모두가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광주시는 이날까지였던 요양병원,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 고위험 시설의 진단검사 확대 행정명령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2주 연장했다. 요양병원 등 종사자 중 백신 미접종자와 1·2차 접종자는 주 3회, 3차 접종자는 주 2회 후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광주는 또 26일부터 전남, 평택, 안성과 함께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가 시범 적용된다. 확진자의 밀집 접촉자 등 역학 연관자, 의사 소견 보유자, 60세 이상, 자가검사 키트 양성자, 신속 항원 양성자 등 고위험군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는 선별진료소에서 제공하는 키트로 먼저 검사를 받거나 23개 병·의원급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신속 항원 검사 받아 양성자 확인되면 PCR 검사를 받는다. 외국인들의 3차 접종률이 30% 정도로 낮은 상황을 고려해 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의 추가 접종도 적극 권유하고 있다.

이 시장은 “설을 앞둔 지금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잠시 멈춤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에도 0시 기준 광주 283명, 전남 206명이 신규 확진됐다. 전남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며 지역별 확진자는 목포 53명, 광양 34명, 순천 18명, 장성 12명, 진도 11명으로, 목포 등 서부권뿐 아니라 광양 등 전남 동부권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광양에서는 또 대기업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에서는 23일 하루 동안(24일 새벽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7513명이 나와 사흘 연속 7000명대를 이어갔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74만1413명이 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가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투자 아닌 투기’...여수상의, 경도 레지던스 건축 반대

“미래에셋 입장 변화 없으면, 경도 관련 예산 통과 안돼”

여수상공회의소는 24일 성명을 내고 “(경도 레지던스 신축이 이뤄지면) 지역 숙박업소 간의 경쟁 심화, 교통유발 효과 상승, 부동산 투기지역 등으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미래에셋이 당초 계획한 약속을 뒤집고 레지던스를 건설하려는 것은 투자가 아닌 투기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만큼 왜곡된 여수경도 개발을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수상공회의소는 “미래에셋은 빚수를 부려가며 지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당초 약속대로 경도를 세계적인 해양관광단지로 건설하는 것에 매진해

야 한다.

또한 이른 시일 안에 지역사회 기대에 부응하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며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도 세계적인 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천명한 당초 개발 계획이 추진되지 않으면 경도 관련 예산안을 절대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0년 4월 여수 경도 2.15㎢(65만평)을 약 3400억원에 매입한 미래에셋그룹 측은 2024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입해 경도를 세계적인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경도

사업 착공식에서도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과 해상 케이블카, 상업시설 등을 갖춘 복합휴양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듬해 4월 사업안을 변경해 경도 관문 역인 연륙교 진입부 6만5000㎡ 일원에 지상 29층, 1184실 규모의 레지던스 신축계획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관광단지 조성보다 부동산 사업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이다.

경도 레지던스 건축 사업은 전남도 건축·경관 심의를 지난해 통과했고 현재는 건축 허가를 위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심의만을 남겨뒀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전남도,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택시’ 전면 도입

‘365일 24시간 즉시콜’...장애인 불편 해소·서민경제 활성화

전남도가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도내 5개 시·군에서 89대를 시범 운영하던 바우처택시를 올해 200여 대까지 늘려 22개 시·군에 전면 도입한다.

바우처택시는 평소 도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요청 시 비회차에 교통약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서비스하는 장애인택시 이외의 차량이다.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비회차에 교통약자가 바우처택시 배차를 요청하면 기존 운영 중인 장애인택시와 동일한 요금으로 관내 지역을 이동할 수 있다. 요금은 기본 2km에 500원, 1km 추가 시 100원이다. 최대요금은 각 시·군 시내버스 요금 이내로 한정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공적이 부족한 장애인택시의 보완 수단이다. 보행이 가능한 비회차에 교통약자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기존 장애인택시 수요를 줄일 계획이다. 교통약자에게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즉시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바우처택시를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약자가 가장 불편하게 여겼던 대기시간이 단축돼 바우처택시 도입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했다. 도입 이후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수도 증가 추세다. 여기에 전남도가 지원하는 바우처택시 운영 예산은 코로나19로 불황을 겪는 택시업계로 흘러 들어가 서민경제 활성화로 선순환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부양에도 도움이 되는 셈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국 도 단위 최초로 도입한 바우처택시가 조속히 정착하도록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해 운영상 미비점을 지속해서 보완하겠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시책 발元に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글로벌모터스 올 임금노사민정, 2.5% 인상 제시

광주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직원의 올해 임금이 2.5%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노사민정협의회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GGM 임금 인상 기준 제시안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김봉길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 김한광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등 각 분야 위원 18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5% 인상안을 제시했다.

2019년 1월 광주시와 GGM 차량 생산 위탁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작성한 투자협약서의 노사 상생발전협정서에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GGM은 원칙적으로 따르도록 했다. 광주시는 회의에서 지난해부터 근로자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한 지원 대상, 금융 지원 확대 계획 등을 공유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국내 오미크론 치명률 0.16% 인플루엔자보다 조금 높은 수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치명률이 델타 변이 감염자 치명률의 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계절성 호흡기 질환으로 토착화된 인플루엔자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 986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치명률이 0.16%로, 델타 변이 감염자 치명률(0.8%)의 5분의 1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사망자는 6명으로, 모두 ‘감염 취약층’으로 꼽히는 60대 이상이었다. 90대와 70대가 각 2명이고 80대와 60대가 각 1명이었다. 감염자 중 사망자는 0.06%지만, 연령 분포 차이를 보정해 표준화된 치명률은 0.16%로 계산됐다. 이는 델타 변이 치명률(0.8%)의 5분의 1수준이다. 그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캐나다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치명률이 델타 변이 감염자 치명률의 4분의 1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이보다 낮다. 2020년 유행했던 코로나19 비(非)변이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1~2% 정도였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의 사망자수는 ‘역학적 관련자’까지 합하면 10명으로 늘어난다. 역학

적 관련자란 오미크론 감염 사실이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역학조사 결과 감염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람이다. 역학적 관련자를 포함한 10명의 사망자 중 3차접종자는 1명 뿐이었다. 1차접종자가 1명, 2차접종자가 5명이었고, 미접종자는 3명이었다.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 중 위중증 환자는 모두 11명(0.11%)으로 70대 5명, 80대 3명, 60대·40대·10세 미만 각 1명이었다. 방대본은 인플루엔자의 치명률을 0.1%로 추정했는데,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보다 겨우 0.06%포인트 높았다.

미국이나 유럽 등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은 지역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면서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굳어지는 엔데믹을 향해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처럼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이런 예상을 뒷받침한다.

방대본은 다만 “오미크론의 유행으로 인해 고위험군 확진자가 증가하면 위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중증·사망자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단기간 내 대규모 유행이 발생한다면 개인중증도는 낮아도 사회적 피해 규모는 증가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연합뉴스

**임야 삽니다**  
지분환영  
중개환영. 010-8902-7900

**제일오피스텔 급매**  
수기동, 20층 중 8층, 33평, 코너  
시세 1억~급매 8천만원, 1/31까지  
소유자 직매. 010-9469-86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은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산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 조적벽돌외벽 스톱비움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목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2 전원주택개발부지와 식재면 조정수 20여년생 8층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산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소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층)**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평마을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전 남향 교통요지 시정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1,276평) 매 9십만원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옹달샘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지 적합 매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점 적용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프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휴플러스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대영공인중개사

**분묘 개장 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2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임의의 개장을 행할 예정입니다.

원지	분묘구수
광주광역시 북구 태평동 신 21-4	1
광주광역시 북구 태평동 신 21-6	1

2. 개장일자: 사유재산권 행사  
3.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유언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5. 안치장소: 전남 곡성군 곡성읍 황계동로 457 (자이로타운 황계동분묘장)  
6. 안치기간: 10년  
7. 기타: 특별히 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 중 추거분묘 관련 문묘는 이 공고로 갈취합니다.  
8. 신고처: (주)하늘엔지니어링 (전화: 062-232-0850)

2022년 1월 25일  
공고인(토지소유자): (주)탑웨이산업  
대행사: (주)하늘엔지니어링(062-232-085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케노**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구

- 동광 266-1920
- 문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안 222-8171
- 양산 571-7658
- 오치 266-7601
- 용봉 433-1503
- 우산 433-1503

동구

- 남광 673-6836
- 동평 222-9054
- 동부 225-6001
- 중암 222-9054
- 총장 222-8171

남구

- 남부 673-6836
- 백운 651-1833
- 봉선 673-6836
- 송암 675-6605
- 진월 671-7276

서구

- 광천 382-5788
- 상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천 376-7153
- 치평 376-6511
- 충암 603-0311
- 화정 369-1625

광산구

- 운남 952-1687
- 월곡 959-1920
- 침단 973-2900
- 하남 955-0451
- 광산 944-0444